



### 홍경대표 :

## 공동체 기반 확고히 다지고 동부 성장극 구축해야



“여러 민족의 왕래·교류·융화를 촉진하는 면에서 연변은 ‘연길식 생활방식(有一种生活叫延吉)’이라는 문화관광 브랜드를 힘써 구축했다. 따라서 국가 관광 ‘왕래·교류·융화’ 촉진 시범도시에 입선되었다.” 홍경은 2025년 연변은 연인원 7,800여 만명의 관광객을 접대하여 전년 대비 85.8% 성장했고 관광객 출행 총 소비가 900억원을 초과해 전년 대비 26.7% 성장했다고 말했다. “양력설 연휴 기간에는 근 1만명의 로씨야 관광객들이 입경하여 새해를 보냈다. 국경간 교류의 상시화는 연변을 인류 운명공동체를 손잡고 구축하는 창구와 뉴데로 되게 했다.”고 홍경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진보하고 함께 번영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힘이며 희망이라고 지적했다.” 홍경대표는 연변은 중국, 로씨야, 조선 세 나라 접경지역에 위치해있는, 전국민족단결보시범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동북아 개방개발의 최전방이라고 밝혔다.

최근년간 연변은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선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경제가 발전하고 후진되며 변강이 조화롭고 안정적인 좋은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왔다.

홍경은 연변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점을 부각시켜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는’ 공유 정신 터전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연변박물관은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연변역사문화지킴이’를 새롭게 출범하여 연변을 찾는 관광객들의 첫번째 ‘방문지’로 되었고 오대장국토수복기념관은 애국주의정신을 발양하는 교양 진지가 되었으며 연길중국조선족민속원, 훈춘 발해고진, 둔화 청시조사(淸始祖祠) 등 문화관광 담체는 데이터 압호를 풀어난 동시에 관광객들이 중화민족 다원일체 구도의 형성과 발전 역사를 몸소 느

/ 인민넷-조문판

### 옥명희대표 :

## 타격 강도 높여 인터넷 도박 ‘검은손’ 끊어내야



별행동과 결부하여 범죄수익 은닉 및 수익금 세탁 범죄 5.9만여건과 인원 9.3만명을 기소했다.

“타격 강도가 만만치 않지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옥명희대표는 관련 범죄의 양형 폭을 높이고 법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해외 도박집단, 조직 두목, 중견 조직원을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고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소득을 몰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진정으로 범죄의 지를 꺾어버리며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

“도박은 자금 유통이 없는 존재할 수 없다.” 옥명희대표는 도박자금의 스마트 식별 모델을 구축하고 부문간 자금 조사 및 통제 폐쇄통로를 구축하여 최대한 불법 수익을 회수하고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그녀는 또 ‘인터넷 도박 블랙리스트(黑名单)+ 동적순찰기제’를 구축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심사의 의무를 짊어지도록 함으로써 도박 류업 내용을 발견하는 즉시 차단할 것을 건의했다. “어느 플랫폼이 도박의 ‘온상(溫床)’이 되면 그 플랫폼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인터넷 도박을 정돈하는 것은 한 차례 지구전이자 난관광략전이다.” 옥명희대표는 검찰기관이 법치의 힘으로 인터넷 도박 범람 태세를 단호히 차단함으로써 백성들의 ‘돈주머니’를 잘 지켜주고 천만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인민넷-조문판

### 함순녀대표 :

## 대중이 량질의 문화 봉사 향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터



민족지역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화 문예창작실천기지’를 설립하는 것은 여러 민족의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화 문예창작 체계 구축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민족문예의 혁신과 발전을 공동 추진할 수 있다. 중화민족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문예창작 기지는 민족문화예술의 왕래, 교류, 융화를 더욱 촉진하고 민족지역 발전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기상을 과시할 수 있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화 문예창작실천기지는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중요한 진지이자 선전 플랫폼으로 창작기지가 전국 여러 민족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민족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번영 발전시키고 중화민족의 공동된 정신적 터전을 건설하는 데 적극 기여할 수 있다.

이 같은 필요성에 기반해 지난해 <민족지역에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화 문예창작실천기지를 공식 설립할 데 대한 건의>를 가지고 전국 광희 회의장에 들어선 함순녀대표는 올해도 문화자신감을 내세울 것을 건의했다.

“과거 우리는 고전무용 극목을 위주로 큰 장단의 군무를 통해 민족무용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우리는 의식적으로 현실에 접근하고 시대에 접근해 관객들과의 공감 포인트를 찾고 있다.” 연변 조선족 무용계에서 근 반세기 동안 활약해온 예술가인 함순녀대표는 연변가무단 부단장직을 맡았으며 현재는 중국무용가협회 부주석을 맡고 있다. 장기간 기증 공연에 뿌리를 내리면서 그는 ‘예술은 기증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리념을 갖추었다. 시골 무대에서 그는 관객들의 호응과 박수에 큰 감동을 받는 한편 공공문화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함순녀대표는 조사연구를 통해 지방 문화사업단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3관 1단’(무형문화유산센터, 군중예술관, 국유 문예원·단)의 기능은 비슷하나 협동이 부족하고 공공문화 자원 리용률이 높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쉽게 말해 무형문화유산센터는 보호와 전승을 책임지고 대중예술관은 대중문화 지도를 담당하며 국유 문예원·단은 창작과 공연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둘러싸고 함순녀대표는 ‘무형문화유산 전승+대중문화+예술창작’의 3위 1체 구도를 구축하고 ‘본관+별관+기증봉사소’ 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특별자금 보장을 설립하는 등 체계적인 개혁 건의를 제기했다.

함순녀대표는 오프라인 무대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파에도 주목했다. 2022년부터 연변가무단은 생방송 공연을 늘어 전통 민요에서 무형문화유산 극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는데 단일 생방송 조회수가 연인수로 최대 100만명에 달했다. 이는 그로 하여금 짧은 동영상 플랫폼의 내용 생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게 했다.

함순녀대표는 일부 짧은 동영상 플랫폼 운영자들이 인티어를 끌기 위해 저속한 내용을 발표할뿐더러 심지어 일부 동영상은 금전주의와 향락주의 내용을 다루어 인터넷 환경을 오염시키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에 영향을 주며 사회 기풍을 해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에 대해 함순녀대표는 플랫폼의 심사 책임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계정에 대해 차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했다. 관련 부문에서 더 세분화된 인티어 연에 내용 관리 규범을 제정해 인티어 정보와 문화 부문의 집행 강도를 높이고 대중의 신고 경로를 원활하게 하며 업종 자를 추진하고 전문 정돈행동을 전개해 더 구속력 있는 감독관리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발머리에서 진행되는 헤빈공연에서 모바일 생방송 장면까지 함순녀대표는 시종 공공문화 봉사와 가치 인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의 사명은 대중들로 하여금 더 많은 량질의 콘텐츠를 접수하고 더 실질적인 문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 김현위원 :

## 전 과정 감독관리로 온라인 안심 소비 실현해야



전국정형 14기 4차 회의에서 료녕성 주재 전국정형 위원 김현은 콘텐츠 전자상거래(内容电商)의 급속한 발전으로 파생된 문제에 비추어 새로운 업종형태에 대한 전 과정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틱톡, 쇼홍수(小红书) 등 플랫폼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제품 품질 미달, 과대 홍보, 판매후 서비스 어려움 등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원인은 플랫폼의 주체적 책임이 부족하고 감독관리 협력이 뒤떨어

지며 추적 기제가 완비하지 못한 데 있다.

이에 김현은 세가지지를 제안했다. 첫째, 플랫폼 책임을 다져야 한다. 플랫폼은 입점전 경영자 정보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행정허가증 등 핵심 정보를公示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전 과정 감독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품 구매, 검사, 물류 등 데이터를 기록하는 근원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식품 분야의 식재료 근원 추적을 강화해야 한다. 부문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고 산업정보, 시장감독관리, 물류 등 부문간 정보 교환을 실현해야 한다.

셋째, 권리 보호 보장을 완비해야 한다. 플랫폼은 우선 배상책임을 리행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상품거래 정보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심각한 신용 상실 사업자에 대한 공동 처벌을 실시하고 집법의 고압적 태세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인민넷-조문판

### 한영철대표 :

## 생태경관, 문화적 깊이, 생활정취의 특색문화관광지 건설해야



전국인대 대표이며 장백조선족자치현 현장인 한영철은 전국 광희 기간에 있던 인터뷰에서 장백현의 문화관광 발전 성과를 얘기할 때 원래의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객 중심에서 실제로 머물고 다시 찾아오는 관광객 중심의 관광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영철은 교통 병목 현상이 해결되면서 장백현의 문화관광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에 심양-백산 고속철도와 G331 변경개방관광대통로가 개통되면서 장백현은 연간 72만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관광 종합수입은 5억 4,000만 원에 달했다. 국경절 황금 연휴 기간 루적 관광객수는 15만 3,700명으로 전년 대비 41.79% 증가했다.

장백현은 ‘변경풍경, 민족풍정, 민생상태, 력사고적’을 핵심으로 현재 국가 AAAA급 관광지 2곳, AAA급 관광지 6곳이 있으며 11개

려행사 분사가 있는데 그중 6개 렬행사가 국경간 관광 조직 자격을 갖추고 있다.

현지에서는 ‘관광지+축제+체험+문화창의제품+코스+미식’ 등 여섯가지 경로를 통해 민족문화를 홍보하고 핵심 관광지를 특색있게 업그레이드하며 민속공연, 무형문화재 전시, 가무 공연 등 요소를 추가하여 지역 민속을 관광지 계획과 운영에 전방위적으로 융합시키고 있다.

한영철은 향후 장백현의 관광 발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길림 연길-장백 핵심개발 개방시험구 정책의 우세를 기반으로 다국 고품질 관광 로선을 계획하고 건설한다.

둘째, 자원 련동을 심화하고 장백 산의 대규모 IP에 융합되어 ‘장백비경 립해설원’ 등 3대 주요 특색 IP를 만든다.

셋째, 교통 발전 기회를 다잡고 북경, 심양 등 대도시를 대상으로 정확한 홍보를 실시하며 특별우대정책을 출시한다.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변경도사에서 아름다운 장백의 경치를 감상하고 민족풍정을 느끼며 건강양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최고의 서비스와 가장 충만한 열정으로 만 곳에서 온 모든 손님들을 맞이할 것이다.” 한영철대표는 전국 관광객들에게 진심어린 초청 메시지를 전했다.

/ 인민넷-조문판

### 최해양위원 :

## 교육 질 제고로 민족지역 고품질 발전에 에너지 불어넣을 터



지난 24년간 조사연구를 위한 최해양위원의 발걸음은 귀주성 여러 민족지역에 남겨졌다. 이 땅의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는 최해양위원은 민족지역의 기반시설 보완으로부터 교육자원의 지속적 확대, 대중 생활수준의 안정적인 향상에 이르기까지 귀주는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표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민족지역의 교육 조건이 뚜렷이 개선되어 갈수록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직무를 수행하고 책임을 다하려는 그의 결심을 더 확고히 했다. 교육으로서, 전국정형 위원으로서 최해양은 올해도 교육 분야, 특히 민족지역의 고품질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이번 대회 제안의 핵심 방향이다. 최해양위원은 교육은 강국건설, 민족흥의 기초라며 민족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진지로 새 시대에 새 사명과 책임을 짊어지고 있기에 민족지역의 고품질 발전은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수립하고 민족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고 표했다.

인공지능(AI)의 발전도 대학교육에 관련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학과 건설부터 인재 양성 시스템, 교원 대우 건설에 이르기까지 이는 새 도전이자 발전 기회이기도 하다. 다년간의 사업 경험과 조사연구를 결합

해볼 때 서부지역 민족류 대학교에 대한 투입을 확대하고 새 라운드 ‘쌍일류’ 건설 또는 핵심 능력 육성에서 서부지역 민족류 대학교를 중점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민족류 대학교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를 확고히 수립하는 것은 민족지역의 고품질 발전을 유력하게 지지할 수 있다.

최해양위원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 귀주민족대학교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고 경험을 쌓고 있는바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심화하고 기업 책임자를 초청해 졸업생들을 위한 전문 지도를 전개하고 있다. 또 수업시간에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 프로젝트에 융합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생산 일선의 문제 해결에 깊이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방위적으로 사회와 기업의 수요를 료해하고 인재 양성고 시장 수요를 결합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힘쓰고 있다.

조사연구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모르고 그의 관심사도 계속 이어져갈 것이다. 조사연구 과정에 그는 일부 향촌지역은 여전히 디지털화 배치가 부족한 곤경에 직면해있음을 발견했다.

“모든 제안은 조사연구에서 비롯되고 기증에서 비롯된다.” 최해양위원은 멀리 나아가야만이 목소리를 널리 전파할 수 있다고 털어냈다. 그는 민족류 대학교의 고품질 운영을 추진하여 교육자원을 최적화함으로써 더 많은 학생들이 고품질 교육을 누릴 수 있고 교육 발전 성과가 여러 민족 대중들에게 실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길 희망했다.

“국가와 지방의 중대한 전략적 수요를 둘러싸고 전문 우세를 발휘하여 교육사업의 진보와 사회발전을 위해 제안하는 것은 정형위원의 직책이다.”

최해양위원은 발걸음을 재촉해 신 주대지를 답안지로 답을 작성하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새 장을 그려나가는 데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이바지할 것이라고 표했다.

/ 중앙텔레비죤방송넷